# 전후 신진시인들의 언어인식과 '새로운 시'의 가능성*

- 『한국전후문제시집』(1961) 수록 산문을 중심으로 -

김양희**

〈차 례〉

1. '황무지의 지성'과 『한국전후문제시집』
2. '포에틱 딕션'으로서의 한국어의 가능성
3. '행동하는 언어'의 의미: 시와 현실의 관계
4. 한국어의 미적 실험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수록된 전후신진시인들의 산문을 대상으로 하여 전후 신진시인들의 언어의식과 새로운 시의 이념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지닌다. 첫째로, 그들은 시적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재인식을 중요한 문학적 과제로 삼았다. '이중언어세대'로서 그들은 '한국어로 문학하기'라는 문학적 과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한다. 사실, 이들이 새로운 언어에 천착한 것은 현실과 분명히 구분되는 '순수한 언어'를 가진 기성 시단에 대항하여 독

* 이 연구는 2014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연구과제번호 201400000000618)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기초·융합교육원 조교수

자적인 문학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현실에 긴밀히 연관된 언어, 시 속에 현실을 기입하는 언어라는 새로운 언어 프레임으로 새로운 시를 창작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어로 시쓰기'라는 시사적인 과업은 한국어의 미적 실험이라는 미학적 과제로 이어진다. 특히 조향이 내건 〈데뻬이즈망〉의 미학은 한국어의 미학적 가능성에 대한 전위적인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전후문제시집』의 수록 산문은 두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하나는 전후의 시인들은 언어- 현실과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현실과 언어의 관계성을 재탐색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시와 현실을 각기 다른 세계에 놓인 자족적 세계로 보지 않고, 두 세계의 연관성에 대해 탐색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언어가 끝나는데서 시작되는 행동'라는 명명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 때 '현실'은 제도와 정치 등의 이데올로기적 현실이 아니며, 제도와 정치가 지배하는 일상의 장에서 개인이 느끼는 욕망이나 억압이라는 구체적 현실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일본어에서 벗어나 모국어를 향하여 개방된 시적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참여한 시인들은 각각 현대성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미학적으로 실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집에 한정해볼 때 그것이 실제 작품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모국어'에 기반한 시적 감수성을 토대로, 새로운 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전후문제시집』, 신진시인, 시와 현실, 현대적 미학, 행동하는 언어, 포에틱 딕션

## 1. '황무지의 지성'과 『한국전후문제시집』

이 논문은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수록된 평론과 〈작가산문〉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한국전후문제시집』과 관련한 논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1960년대 시단과 연관하여 이 시집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명찬[1]은 이 시집을 『해방 20년 기념시집』과의 비교를 통해, 전후의 문학적 실어증을 극복하고 1960년대의 시단을 이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수록 작품들을 통해 전후 시의 수사학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송승환[2]은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수록된, 김종삼, 조향, 전봉건 등의 형식적인 특성을 분석하면서 전후 모더니즘의 수사학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방향은 이 시집을 통해 전후 현대성의 담론에 대해 사유하려는 시도[3]이다. 임지연은 당대의 시인들을 세계시민으로서의 개인 주체로 상정하고 1957년 '인간가족전(人間家族展)' 전시회의 담론화 양상과 그들의 시를 연결 지어 코스모폴리탄적 감각을 살핀 바 있으며, 남진숙은 전후시의 몸 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 중 1950년대 시로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전후문제시집』에 대한 선행연구는 수사학, 육체담론, 현대성의 문제 등 전후시의 인식론적·미학적 특징을 해명하

---

1) 이명찬, 「1960년대 시단과 『한국전후문제시집』」,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제26호, 2011.12, pp. 473-499.

2) 송승환, 「조향 시의 수사학 - 전후문제시집을 중심으로」, 중앙어문학회, 『어문론집』 47집, 2011, pp. 197-218.
송승환, 「김종삼과 전봉건의 수사학 - 전후문제시집을 중심으로」,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32집, 2011, pp. 311-330.

3) 임지연, 「1950년대 시의 코스모폴리탄적 감각과 세계사적 개인주체」, 한국시학회, 『한국시학연구』, 2012, pp. 185-215.
남진숙, 「한국전후시에 나타난 몸에 대한 표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8집, 2010, pp. 75-98.

려는 시도 아래 진행되어 왔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전후시의 현대적 징후를 드러내는 집약적인 텍스트로 『한국전후문제시집』을 주목하고 그 현대적 지점을 드러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후시의 현대성을 해명하려는 관점에서 논의와 관련되는 텍스트의 일부를 다루고 있어 『한국전후문제시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점 역시 아쉬운 지점이다.[4]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한국전후문제시집』의 산문에 주목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연구는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수록된 3개의 평론과 작가산문 〈작가는 말한다〉라는 제하(題下)의 산문을 대상으로 하여 전후신진시인들의 시와 언어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한국전후문제시집』의 수록 산문 중 〈작가는 말한다〉는 시인들이 자신의 시관·시론, 시작 동기 등을 다룬 글로서, 일종의 시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당대 시인들의 언어관과 현대시 인식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전후에 새롭게 등장한 신진시인들의 언어관과 시를 둘러싼 논의들에 집중함으로써 전후 문학 장(champ)의 구성과 담론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려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다. 앞서 선행연구들이 비교의 관점을 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수록산문들이 서로 공명하며 이루어내는 '시대성'에 주목하려는 데에 논문의 문제 의식이 놓인다.

연구의 대상인 『한국전후문제시집』은 1961년 신구문화사에서 낸 10권으로 구성된 『세계전후문학전집』[5] 중 제 8권에 해당하는

---

4) 다소 지엽적인 오류이기는 하나, 이명찬의 논의에서 『한국전후문제시집』의 출간년도를 1961년이 아닌 1964년으로 오기한 이래, 후속 연구 역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1964년으로 따르고 있는 점은 원자료의 서지사항에 대한 검토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5) 10권으로 구성된 이 전집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남북구, 일본의 소설 작품들을 1-7권으로 하고, 8권-10권으로는 한국 전후를 대상으

앤솔로지 시집이다. 여기서 '전후'는 '세계전후문학전집'이라는 시리즈 명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한국전쟁'이 아닌 '세계전쟁' 이후를 뜻하는 것이었다. 즉, 이명찬[6]이 지적한대로 '한국전쟁'이라는 특수를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라는 보편에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해 '한국전쟁 후'라는 내용을 '세계전쟁 후'라는 형식에 담는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구'라는 보편 속에 '한국'을 위치규정하려는 당대 문학인들의 무의식적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즉, 서구=보편이라는 등식의 성립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한국문학의 현실을 지시하는 것인 동시에, 세계적 수준으로 한국문학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었던 것이다. 『한국전후문제시집』은 '전후'라는 명명을 통해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사이의 불일치를 일정 정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이 앤솔로지 시집은 1945년~1961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신진시인들을 한 자리에 묶어내는 문학적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 혹은 시적 언어를 둘러싼 당대 시인들의 다양한 발화와 담론들을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집의 수록 시인은 "1945년부터 1960년 12월까지" 즉, 해방 후부터 15년 간의 등단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선정되었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표면적으로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서구적 보편의 틀에 우리 시사를 바라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면에는 1945년 이전의 시인들과 이후의 시인들을 기성세대/신세대로 암암리에 구분함으로써 이 시집은 새로운 세대의 문학론(시론)을

---

로 한 앤솔로지 시집인 「한국전후문제시집」과 세계 전후의 대표시선을 담은 「세계전후문제시집」, 세계의 대표 희곡을 선정하여 편찬한 「세계전후희곡집」을 배치하였다.

6) 이명찬, 「1960년대 시단과 「한국전후문제시집」」,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제26호, 2011.12, p. 486.

대변하는 문학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시집은 박인환, 고원, 고은, 구상, 구자운, 김관식, 김광림, 김남조, 김수영, 김윤성, 김종문, 김종삼, 김춘수, 민재식, 박봉우, 박성룡, 박양균, 박재삼, 박태진, 박희진, 성찬경, 신동문, 신동집, 유정, 이동주, 이원섭, 이형기, 전봉건, 전영경, 정한모, 조병화, 조향, 황금찬 등 30명의 시인을 수록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는 유파를 막론하고 당대에 활발히 활동하였던 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 즉, 구자운, 이동주, 박재삼 등 미당과 청록파를 이어받은 전통적 서정시의 시인들부터 김윤성이나 김광림 등의 온건한 중도성향의 시인과 더불어, 조향과 박인환 등의 급진적 모더니스트인 '후반기' 그룹 등을 총망라함으로써, 당대의 '시적인 것'의 이념을 둘러싼 세대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르디외가 문학장(champ)이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명명했듯이, 문학은 세력의 장이며 이 세력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전통적으로, 문학장에서 대립과 경쟁 상태에 놓인 각 진영의 문학인들은 정치적·제도적·미학적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문학이야말로 다른 문학과 구분되는 '진정한' 문학임을 논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른바 『한국전후문제시집』의 작가산문과 평론은 새로운 세대의 시인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념으로의 '정의내리기'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산문을 적극적으로 읽어내야 할 이유이다.

더불어 해방기에 등단한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시력을 쌓아온 이 시인들은 문단의 신인기를 지나 중진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 시집이 출간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한국시사에서 전후시가 서정과 주지, 전전(戰前) 세대와 전후(戰後) 세대의 세대론, 난해성과 대중성 등의 다양한 쟁점을 생산하면서, 전통적인 서정시와 구분되는 새로운 시의 담론생산에 주력한 시기라는 점은 『한국전후

문제시집』의 산문을 더욱 정치하게 읽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한국전후문제시집』은 전후 시단이 놓인 두 가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7] 하나는 전쟁으로 인해 "몇 안 되는 발표기관을 잃고 시인 자신이 생존 그 자체"의 위기에 놓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후반기로 대표되는 "한국시에 대한 반성과 반발에 있어 가장 정열적인" '모더니스트'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때 김춘수가 말한 한국시에 대한 반성과 반발이란, 곧 공식화된 시적 언어와 문학제도에 대한 반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주류 문학인 미당류의 '전통 서정시'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전후문제시집』의 출간이 4·19혁명 이듬해인 1961년이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즉,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확립된 현실지향성이 4·19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은 이 시집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현실'은 전쟁과 혁명을 거친 전후의 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전 시기의 시인들과 구분 짓게 하는 기준점이 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호명하고 있는가? 박봉우의 글을 참고해보자.

> ⑴ 조병화·구상·김수영·김춘수·김윤성·김구용·송욱·이동주·전봉건·김경린·박태진·고원 등 「청록파」 이후의 八·一五해방과 더불어 이런 시인들의 움직임이 우리 현대시의 어떤 주류 비슷한 것을 암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세대 앞에는 커다란 장벽이 놓이고 우수와 고민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록파」들 전후로 한 시인들과 八·一五를 이후로 한 시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세대는 八·一五 전란을 몸소 체험하였고 현대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황무지의 지성」들은 찢어진 저항의 기를 올리고 신세대를 비평하고 복잡한 세계의 상황 속에서 보다 더 강렬히 우리 양

7) 김춘수, 「전후 십오년의 한국시」,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년, pp. 304-306.

단된 조국의 운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8)]

위 글에서 박봉우는 세 가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우리 세대'라는 세대적 인식이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조병화, 구상, 김수영, 김구용, 송욱 등의 당대 시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호명함으로써, 이전의 세대와 분명히 구분하는 세대로 규정한다. 이는 당대 시인들이 시단을 유파 보다는 세대적 특성을 우선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봉우는 '전쟁 체험'을 중심으로 김경린 등의 모더니즘 시인 뿐 아니라 이동주 등 서정시인까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세대가 성립되었으며 이들이 현대시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통 서정시계열과 모더니즘 계열, 주지적 서정시 계열까지 다양한 색채를 띠고 있었던 당대의 시인들에게서 공통된 시적 이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보수적 시 의식에 대한 반발을 새로운 시의 정신으로 공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둘째로, 신진 시인들은 기성 문학을 '황무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을 '황무지의 지성'이라 명명하는 바, 황무지의 비유와 더불어 서정 대신 지성을 내세움으로써, 기성 문학의 서정적 흐름과의 단절을 도모하면서 '지적인 태도'를 자신들의 문학적 태도로 규정하고 있다. '화전민'[9)] 비유나, 황무지의 비유는 단지 개인적 비유가 아닌 당대 신세대들의 일반적인 비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문학적 토양을 전통적인 것과는 형질 면에서 낯설고 다른 것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신인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셋째, 스스로

8) 박봉우, 「황무지의 자세와 황무지의 정신」,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p. 467.

9) 이어령, 「화전민 지대 - 신세대의 문학을 위한 각서」 경향신문 1957.1, pp. 11-12. (최예열 편, 『전후 한국 문학비평 자료』, 월인출판사, 2005, pp. 675-677에서 재인용.)

를 세계 시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그들은 세계의 상황과 조국의 운명을 결부지어 생각하는 '세계시민'으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세계'의 일원으로서의 '한국'에의 인식에서 나아가 '한국어로 문학하기'라는 문학적 과제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된다.

『한국전후문제시집』의 편집위원이 백철, 유치환, 조지훈, 이어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중진 평론가로서의 백철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중 유치환과 조지훈 등은 문총 계열의 기성세대 문학과 결별하면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써 문화운동을 바른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충정의 표현[10]"으로 시인협회 창립을 주도한 문인이며, 이어령은 각광 받는 신예평론가였다. 이러한 편집위원들의 배치는 『전후문제시집』이 한국시의 기초를 잡았던 미당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학사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방증이다.[11] 특히 이 시집에 실린 세 편의 평론 「전후 십 오년의 한국시」, 「전후시에 대한 노오트 2장」, 「구미시와 한국시의 비교」는 50년대에 당면한 현대시에 대한 논의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언어와 현실, 그리고 미적 실험의 측면에서 보다 성숙되고 객관화된 목소리로 발현됨을 보여준다.

이렇듯, 『한국전후문제시집』은 1950년대 중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한국시의 미적 흐름과 현대성에 대한 담론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 텍스트이다. 더불어, 이 시집을 통해 우리는 1960년 4월 혁명을 이제 막 경험한 문단이 현

10) 한국시인협회, 「한국시인협회 취지서」, 『현대시』 제1집, 정음사, 1957, p. 1. (박연희, 「제도로서의 기구: 1950년대 후반 시단의 재편과 현대시 개념의 논리」,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43집, 2011, p. 67에서 재인용.)

11) 이명찬, 앞의 논문, p. 487.

실지향성을 시적 이념으로 분명히 한 60년대 문단의 성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고민들과 시행착오를 발견하게 된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전후 신진시인들의 언어의식과 시에 대한 담론을 포에틱 딕션으로서의 한국어의 가능성, 언어와 현실의 관계, 시의 실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 2. '포에틱 딕션'으로서의 한국어의 가능성

이 시집에 실린 세 편의 평론 「전후 십 오년의 한국시」, 「전후시에 대한 노오트 2장」, 「구미시와 한국시의 비교」은 모두 후반기 동인의 탄생을 매우 중요한 전후시의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통적 서정시 중심의 문학사 대신 (모더니즘을 비롯한) 해방 이후의 문학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사의 손을 들어주려는 『한국전후문제시집』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데 그들이 후반기 동인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문학을 발전 논리로 접근하는 가운데, 우리 시가 세계문학의 수준에 근접했음을 후반기 동인들이 언어로서 증명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태진은 「구미시와 현대시의 비교」에서 해방의 의미를 외국문학을 향한 문호개방에 두면서, "日人에 의하여 생경히 소개된 모더니즘을 참뜻에서 우리의 언어의 가능성 안에서 비로소 의존하였다"[12]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한국전후문제시집』이 주목하는 것은 일본어를 매개로 하지 않는 '우리 언어의 가능성' 즉, 문학의 매체로서의 모국어의 가능성이다.

「전후 십 오년의 한국시」에서 전후한국시는 청록파 대 후반기의

12) 박태진, 「구미시와 한국시의 비교」,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p. 316.

구도로 대별된다. 김춘수는 전후 십 오년을 현대성 지향의 시대로 간주하고 전통적인 감각으로는 현대의 속성을 제대로 간파해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전후시의 현대적 감각을 살피고 있다. 그는 "후반기 동인회의 당면한 공격대상은 청록파와 그 아류들"이며, "청록파와 후반기는 해방시단 십 오년의 기억할만한 두 개의 사건"[13]이라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후반기의 모더니즘 운동을 새로운 시정신의 전범으로 승격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의 핵심은 당대의 시를 내면지향과 사회지향으로 계보화하고 이들을 각각 스타일과 형식면에서 논의하는데 있는데, 그는 현대성의 인식론적 전환을 바탕으로 스타일의 변모를 일군 시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의 계보학을 시도한다. 그는 시의 '현대성'을 전통 정서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도시성'이라 규정한 후 전봉건, 송욱, 김종문, 김윤성, 김구용, 민재식 등 새로운 시적 흐름을 보여주는 시인들에 주목한다. 김춘수는 그들을 '어휘선택이나 문장구조'의 토착어를 벗어나 '새로운 시 정신과 형식' 즉, 새로운 시를 위한 새로운 감각의 언어와 형태의 실험에 관심을 기울인 시인들로 평가하는 것이다.

앞서 박태진이 후반기를 주목한 지점은 '시어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실험정신에 있다. 즉, 「구미시와 한국시의 비교」가 전제하는 것은 우리 시의 후진성이며 그는 이 후진성이 노말한 인생경험을 획득하면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해방이라는 거창한 계기가 비로소 한국인에게 소위 노말한 인생경험을 주게 되었다. 비로소 시인은 실생활을 갖추게 되어 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자. 한 편의 시가 어떤 국면에서 소산된 일제시대와는 달리 시인의 정신 전체의 소산이어야 했다"[14]는 판단이다. 여기서 '노말'

13) 김춘수, 「전후 십 오년의 한국시」, 앞의 책, p. 306.
14) 박태진, 「구미시와 한국시의 비교」, 앞의 책, p. 316.

이라는 말은 다소 흥미롭다. 박태진에게 '노말'의 요건은 '실생활'을 담고 있느냐의 유무로, 해방은 외국문학에로의 문호개방이라는 점과 더불어, '실생활'을 확립하게 된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 때 시가 담아야 할 '노말'한 인생 경험이란 '자연에 대한 시'에서 '개인을 의식'하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인생의 문제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엘리옷이나 오든의 시가 보여주는 현대인의 정서가 바로 '오늘의 시'를 이루는 기원이 된다. 이처럼 박태진은 우리 '시어의 새로운 의식'이 현대성의 높은 지점을 이미 획득한 영미시와 교섭하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영미시를 따라 배우는 것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 오늘의 시를 생각하고 발견하려든 우리 시인은 커다란 쇽을 받아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혹자는 직접 영미시를 씹어 읽고 혹자는 일어역에 의지하였다. 그러나 다같이 우리의 시어에 새로운 의식을 주려고 애썼고 시어의 한계를 넓히려고 노력을 했다. 이 움직임이 우리 시단에 뚜렷이 보이게 된 것은 六 二五 前後이라고 하겠다. 소위 모더니스트 또는 後半期 詩人이라고 指彈을 받은 시인들이 바로 그들이다.15)

그런데 영미시를 직접 읽거나 '日語譯'에 의존했다는 박태진의 증언처럼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수록된 시인들은 식민지 시대에 출생하여 모국어 대신 일본어를 읽고 쓰고 자란 이른바 '이중언어 세대'였다. 한국어가 공식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국어로 시쓰기는 이를 테면 새로운 시어의 창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모국어에 기반한 새로운 시어의 발굴은 그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일종의 과제였던 것이다. 특히,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수록된

15) 박태진, 앞의 글, p. 317.

시인들의 등단시기가 해방 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습작기간은 자연스럽게도 한국어의 언어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와 맞물린다.

> (3) 해방이 되자 나는 모국어로 시를 써야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의 국어 실력은 겨우 「가갸거겨」를 간신히 판독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여 (중략) 한편의 시를 쓰기 앞서 그것을 머리 속에서 구상할 때 머리 속에 이루어지는 구상을 일본어로 연락되고 조직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의 모국어 실력은 내가 나의 한 편의 시를 쓰는 데 충분한 힘이 못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통이나 비극은 지금 나와 같은 삼십대의 시인이나 소설가가 역사적으로 짊어졌던 공통적인 장벽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16]

전봉건이 술회했듯이 30대의 젊은 문인들에게 모국어로 시쓰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모국어로 시를 쓴다는 것은 곧 일본어에 맞게 이루어지는 구상을 한국어로 재번역하는 이중의 수고로운 일이었던 것이다. 가령, 박인환은 "일본말이 무척 서툴렀고 조선말도 제대로 아는 편이 못 되었[17]"으며, 조향은 『日本詩壇』, 『詩文學硏究』 등에 일어로 된 시를 발표하면서 일본 시단에서 활동한 시인이었고, 김수영은 "나는 한국말이 서투른 탓도 있고 신경질이 심해서 원고 한 장을 쓰려면 한글 사전을 최소한 두어 서너번은 들추어 보는"[18]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그들이 시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사전을 통해 탐색하는 새로운 언어 개발과 연관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불필요한 한자어와 어색한 통사구조, 이국취향의 시어들은 근본적으로 미숙한 한국어의 사용에서 오는 불가피한 역설이

16) 전봉건, 「시작 노오트-고쳐 쓰기 되풀이」, 앞의 책, p. 403.
17) 김수영, 「마리서사」, 『김수영전집』, 민음사, 2002, p. 42.
18) 김수영, 「시작 노우트 4」, 앞의 책, p. 294.

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박인환, 전봉건 등 비교적 모더니스트로 구분되는 시인들만이 전담한 고민은 아니었다. 당대의 신진 시인들은 유파를 막론하고 '시적 언어로서의 한국어'라는 문제가 기성 문학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시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시 쓰기는 한국어의 예술적 구성을 창조하는 과정과 동일시된다. 가령, 구자운이 "오늘 젊은 전후의 시인들이 한 일은 주체성을 갖는다는 기본작업이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의 예술적구성이라는 詩作의 實地과제였다"[19]라고 할 때, 주체성은 곧 '시적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재식 역시 구자운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시적 언어의 개발을 시인의 책무로 여긴다. "언어에 대한 최초의 편애자"인 시인은 "「종족의 언어를 순화하는 임무」에 착수"하여, "그 위치에 따라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형성 추대하는 낱말"[20]을 창조하는 일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당대의 신진시인들에게 시어의 문제야말로 한국시의 현대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였다. 즉『한국전후문제시집』에서 보이는 시적 언어로서의 한국어라는 문제는 한국시의 현대성의 미학을 언어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데서 필연적으로 가 닿은 문제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대 시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예술어로서의 한국어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심층에는, '어떤 언어가 시적 언어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태진은 그 해답을 후반기 그룹의 언어에서 찾았지만, 전통서정시인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

19) 구자운,「시와 언어」,『한국전후문제시집』, p. 341.
20) 민재식,「그냥 노오트」,『한국전후문제시집』, p. 364.

들에게 '시어로서의 한국어'는 발굴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보존하고 세련해야 할 대상이다. 장인수가 지적한대로, 서정주 시인의 추천으로 『문장』과 『문예』, 『현대문학』 등으로 등단한 전통서정시 계열의 시인들은 이른바 『문장』 시대에 발명된 '민족어'를 각종 매체에 활용하면서 안정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다. 그러한 '민족어'란, 이동주, 김관식, 구자운 등의 '의고체', '아어' 취향으로 대표되는데, 이러한 언어형식은 청록파-서정주로 이어지는 전통서정시의 공식 언어였던 것이다.[21]

> ⑷ ① 나는 일본서 났다. 아버지는 일제하 이 땅에서는 살 도리가 없어 일본 땅을 밟았으니 무슨 높은 벼슬아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근근히 노동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던 아주 가난한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태어났다. 비록 어렴풋하기는 하지만, 어릴 때 어머니의 등에서 「아리랑」이나 「도라지」의 구슬픈 가락에 단잠이 들었던 것 같다.[22]

> ② 종래의 시의 경우 「백록담」은 우리나라 시의 언어적 절정이었지만 오늘 전후의 젊은 시인들은 이를 등한히 여하여 나쁜 결과 밖에 가져온 것이 없다. 그래도 「화사집」, 「귀촉도」, 「풀잎단장」은 언어의 완벽한 용례로서 고전화 될 것이다. 그러나 젊은 시인의 업적으로서 과연 언어에 기여한 뚜렷한 무엇이 있는가 물론 언어의 새로운 구성, 종래에는 비시분야였던 방면에의 현대적인 언어를 발굴해온 공적이야 있다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예술로서 성공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데는 섣불리 낙관할 수는 없다.[23]

인용문 ①에서처럼 박재삼에게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설 움'이라는 시적 정서의 근원을 이루는 사건으로 중요성을 갖

---

21) 장인수, 「전후 모더니스트의 언어적 정체성」,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5, pp. 40-41.
22) 박재삼, 「사족」, 『한국전후문제시집』, p. 377.
23) 구자운, 「시와 언어」, 앞의 책, p. 342.

는다. 그의 일본체험은 언어적 정체성과는 무관하다. 그에게 언어적 정체성은 '아리랑', '도라지'의 입말 즉, 태생적인 언어인 '구어로서의 한국어'에 기반한 것이다. '시=노래'의 등식에는 이러한 구어로서의 시적 언어라는 언어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만주, 향항, 남지 등지로 떠돈 외숙과 「내지」 동북, 북해도 지방을 돌아다닌 삼촌의 방랑을 사랑한' 고 은도 마찬가지어서, "한때 주지주의 시론 일반에 입각한 적이 있었기는 하나, 이후 서정시에 서정주의 지·정·의 종합의 시론에 뿌리박고 그것을 나의 시인적 본능으로 변화시켜 가고"[24]있다고 쓰고 있다. 이들 전통서정시파들에게 시적 언어의 전범은 정지용과 서정주의 시에 있었다. ②에서 구자운은 강렬한 색채미와 간결 직경한 언어표현, 그리고 음악성을 견지한 것이 '예술성'이라고 보았다. 즉, 기성 시단이 보유한 중요한 미적 자질인 음악성과 색채미를 중요한 예술적 덕목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의 연금술을 근간으로 하는 상징주의는 시의 전범으로 간주된다. 즉, 새로운 언어의 발굴보다는 (지용과 미당의 작품에서처럼) 고전적인 언어의 숙련과 세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모국어에 대한 전통시파의 인식, 즉 - 구어가 갖는 자연스러움은 곧 시의 자연스러움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다. 시의 자연스러움이란 곧 노래로서의 자연스러움, 음악적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당대의 시인들은 구어로서의 시적 언어에 대한 실험과 세련이 이미 정지용, 서정주 등에 이르러 완성되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현실을 존재하는 언어와 시적 언어를 뚜렷이 구분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②의 밑줄 친 대목에서처럼, 그들에게 소위 전후의 모던한 시인들이 구사하는 새로운 어휘의 '현대적인 시어'는 '문제적'일 수는 있지만, '과연 예술적인가?'라는 질

24) 고은, 「시의 사춘기」, 앞의 책, p. 338.

문에 대해서는 낙관적 응대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당대 시인들이 시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에서 보이는 인식차는 일상어와 시어의 구분 뿐 아니라, 문자어와 구술적 언어라는 기호성에서도 확인된다. 전술했듯이 박재삼이나 고은의 경우에 시적 언어는 입말, 즉 구어였다. 그러나 가령, '영상과 視覺의 시대'라는 당대의 보편적인 문화적 '사실'을 새로운 시의 핵심으로 받아들인 시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언어의 발굴을 이미지에서 찾으려는 시도들도 있다. 가령, 김종문은 이미지에서 문자를 넘어서는 혁신성을 발견한다.

> (5) 나의 경우에 문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자로 번역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번역되는 '이미지' 또는 '판타지'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자의 배열이나 '레토릭'에 있어서는 '이미지'나 '판타지'의 '폴름'에 따라서 결정된다. (중략)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은 시인에게 있어서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말인 것 같다. '이미지'나 '판타지'가 조형되지 않는다면 결코 문제라 번역하되 알맞은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하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림이나 기타의 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25]

그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문자에서의 영상으로의 번역 가능성이다. '視覺의 시대'라는 단언은 당대의 보편적인 문화적 '사실'이었던 바, 김종문은 현대의 매체가 문자성에서 영상이미지로의 변화된 것에 주목한다. 그럴 때, 음악성에서 시각적 조형성으로의 이미지나 환상처럼 시각화의 방식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것이다. 즉, 문자의 이미지로의 '번역'을 현대시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음악적 자질에 대한 시각적 자질의 우위 혹은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어의 체계 안에서 가능한 온건한

25) 김종문, 「시작에 있어서의 세 단계」, 앞의 책, p. 360.

실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시적인 것에 대한 가치나 시의 존재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편『한국전후문제시집』에서 우리는 시적인 것을 재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시적인 감성체계를 재배치하는 시도를 보게 된다. 즉, 한국어의 '포에틱 딕션'이라는 프레임을 재구하려는 담론이다. 이어령은 평론「전후시에 대한 노오트 2장」에서 각각 'actuality와 poetic', '포에틱 딕션'이라는 소제목 아래 논의를 진행한다. '포에틱 딕션'에서 그는 "정치적인 혁명은 제도의 혁명이지만 시의 혁명은 언어의 혁명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언어의 혁명'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고전주의자들로부터 평민어를 해방시킨 워즈워드의 예를 들고 있다.

> ⑹ ① 그러니까 이러한 슈도 크래시시즘의 악취미와 공허한 공허한 어법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워즈워스」일파의 혁명군은 평속어의 해방을 부르짖게 된 것이다. 평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 귀족주의전제에 항거한 민중의 혁명처럼 이들은 평속어가 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고전주의자의 언어전제에 도전했다.
>
> ② EE·커밍스는「튜립」과「굴뚝」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씨니컬한 도전을 꾀하기도 했고 엘리오트는「굴껍질」,「톱밥」샌드위치의「포장지」「담배꽁초」등 소위 비시적인 일상어를 등용시킴으로써「나이팅게일」과「장미족」시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와 같이 시의 혁명은 그 기계화된「포에틱 딕션」의 파괴와 재건에서 이룩된다.
>
> ③ 한국의 전후시가 종전의 그것에 비해 색다른 음향, 색다른 육체, 그리고 색다른 제스춰어를 지니고 있다면 그 태반이 바로 포에틱 딕션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다. 전쟁 용어(군사용어) 정치술어, 또는 관념적인 철학자에서 현대문명의 용언에 이르기까지 전전의 그것과는 특이한 대조를 이룬다.

⑹에서 이어령은 언어혁명을 정치혁명에 비유하고 있다. 즉, 정

치에서의 평민의 참여를 평속어를 시에 참여시키는 언어의 혁명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는 미래파 시인들이 숫자와 과학어, 건조한 도식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시적 언어인 농민어를 난타했다고 말한다. 그는 기성의 언어를 난타하고 그 언어에 저항함으로써 비로소 '포에틱 딕션'이 생성된다고 보았다. ③에서 그는 시의 지배적 담론 체계, 즉 당대의 시라는 감성 체계에 대한 도전과 저항을 이루는 것이 '포에틱 딕션'이며, 그래서 한국의 전후시가 종전의 자연중심의 언어에서 정치술어, 현대문명의 용언들, 전쟁용어 등의 언어로 변화되는 것을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 서정시의 담론 체계에서의 지배적인 언어를 깨뜨리는 데서 시의 혁명이 비롯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시의 장(場) 속에 새로운 언어들이 기입되는 것은 기존의 감성 체계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던 언어(가령, 비속어 평속어 등)가 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어령은 '도라무통', '할로', '오케', '요강뚜껑' 등등의 하층민 언어를 구사하는 전영경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전영경은 하층민들의 無學한 언어를 시 속에 기입한 "언어의 넝마주의자로서 서정을 갖고 있는" 시인이다. "포에틱 딕션이 병적으로 과장되어 나타난 것이 전영경의 시"이며, "의식적인 현대적 속어(상말)에 의해 시의 扮裝을 노리고 있는 것"[26]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작 전영경은 이런 언어 구사로 인해 "'쌍소리 시인'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호칭을 얻게 된 데에"[27] 다소 체념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어령은 전영경의 시가 지닌 기존의 시어와는 다른 언어운용-현대시의 언어- 방식에 주목한다. 이러한 언어의 출현에서 우리는 당대의 새로운 시가 기성 시의 지배

---

26) 이어령, 앞의 글, p. 329.
27) 전영경,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새요」, 앞의 책, 1961, p. 405.

적 담론 체계를 파열하는 예비적 징후들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 글을 평론가로서 이어령 개인의 탁월한 안목을 드러내는 지표로 읽어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가 전영경을 통해 주장하려고 한 것은 기존 시단의 시어에 대한 고정관념, 기계적 시어관 등을 비판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전영경의 언어를 새로운 언어의 전범이라거나 새로운 시의 사건으로 지지하거나 긍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글의 결미에서 전영경 류의 언어에 대해, 속악한 저널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어의 넝마주의'와 '서정'의 결합은 당대 시의 어떤 징후-즉, 기존의 서정이라는 감성체계에 대한 '넝마주의' 언어의 침입, 그 기묘한 불일치-를 우리 앞에 드러내준다. 즉, 전영경의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존 전통서정의 미적 자질과도 다르고, 순수 모더니즘의 미학적 자율성과는 다른 또 다른 제 3의 특성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기존의 시적 체계 안에서는 배제되었던 것 - 즉, 세속적 인간과 세속어-를 시적 체계 속에 침입시킴으로써 낡은 감성적 장에 불일치하는 문학적 사건을 만들어내려는 조짐에 대한 주목이다. 수록시 「김산월여사」에서 전영경은 퇴물 창부인 '김산월'을 시적 화자로 삼는다. 이것은 근대시에 있어서 부재했던 어떤 자리를 만들어내는 한편 이를 통해 시가 가진 기존의 감성 체계를 재배치하는 효과를 산출한다. 좀 더 부연하자면, 전영경의 시들은 서사적 인물들을 다수 등장시켜 그 인물들의 타락상을 다양한 서사로 제시하면서 시를 비시화(非詩化)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시적 효과가 선택된 언어들의 조직과 배열을 긴밀히 하는데서 발생하는데 비해 그의 시어는 기교를 무시하고, 시적 비유나 상징을 거부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럴 때 텍스트 내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미적'인 구분은 사라진다. 현실의 폭력성은 여과 없이 시속으로 흘러들어오고 그만큼 시

는 비루해진다. 이러한 시들은 랑시에르적인 독법[28]을 빌자면, 윤리적 예술 체제도 아니며 재현적 예술 체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세계의 낡은 감각을 재배치함으로써 삶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즉 진정한 '정치적인 시'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시와 비시의 구분을 허무는 새로운 시라고는 할 수 있다. 이른바 시에 세속적 일상 그대로를 기입함으로써, 현실의 일부로서 시가 '참여'하는 어떤 예비적 자리를 포착하고 있음은 간과하기 어렵다. 부연하자면 이 지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영경의 시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시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경향들을 현대시의 특이한 징후로 감지하고 있는 당대의 시선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적 언어로서 한국어라는 언어적 정체성을 확정해가는 가운데, 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되물음으로써 시의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두 번째와 관련하여 우리는 '언어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행동'(이어령)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언어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당대 시인들의 사유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는 언어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시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

28) 랑시에르는 미학 분야를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감성의 분할들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윤리적 이미지 체제, 재현적 예술 체제, 그리고 미학적 예술체제이다. 윤리적 이미지 체제는 문학의 본질을 에토스에서 찾고, 시학적/재현적 예술 체제는 세계의 일반 질서를 유비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미학적/감성적 예술체제는 세계의 낡은 감각적 분배를 파괴하고 다른 종류의 분배로 변환시킴으로써 삶의 새로운 형태들의 발명을 동반한다. 이렇게 해서 랑시에르는 감성적 체제에서 예술로 식별되는 활동을 정치와 조우시킨다.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문학의 아토포스』, 그린비, pp. 21-26 참고.

## 3. ‘행동하는 언어’의 의미: 시와 현실의 관계

1950년대 중반 신진 문인들이 문단의 전면에 등단한 이후 그들이 당면한 과제는 새로운 질서의 구성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관, 새로운 문학관의 확립이 필수적인 바, 그들은 문학의 자율적 관점과 실천적 관점을 대비시키고 실천적 관점을 지지한다. 그들은 기성 시단이 ‘비경험적’이고 ‘투명한’ 언어를 사용하여 현실적 행동과 무관한 시를 창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7)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행동할 기력이 없을 때 그 절망의 단애 저편 쪽 피안에서 공교롭게 언어가 나타난다. (중략) 물론 이 때의 언어는 생활화된 일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비경험적인 투명한 언어 한번도 사람의 폐부에 들어간 일이 없는 공기처럼 순수한 언어다 이러한 언어들은 현실적 행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가 말하는 「보리밭」이나 「꽃」이나 「학」이나 「솔방울」같은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주위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이미 대지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해버린 언어, 즉 증발된 언어인 것이다.[29]

이른바 이들은 ‘시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기성 문학 세대와는 다른 형식과 방법론으로 시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기성문단과의 두 가지 결별을 도모했다. 하나는 현실과 괴리된 토속적인 삶을 자연의 세계로 이상화하려는 시적 세계와의 결별이며 다른 하나는 현실과는 자율적으로 구성된 시적 언어의 규범과의 결별이었다. 이 두 가지의 결별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시적 세계와 시적 언어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 문제는 현실과 시적 세계와의 관련성으로, 현실과 언어, 시와 현실이라는 두 항의 관계

---

29) 이어령, 「전후시에 대한 노오트 2장」, 『한국전후문제시집』, p. 324.

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한국전후문제시집』의 수록산문에는 현실/언어, 현실/시와 관련된 담론들이 눈에 띈다. 박태진은 "한국시는 전통적으로 자연에 대한 시였다. 그리고 그 시성은 인생의 허무감으로 인해 앙양되는 것이었다."면서 현대시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30] 즉 시의 변화를 정치체계의 변화에서 찾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 의거해 논의가 전개된다.

> (8) 전후의 우리 시단을 반쯤은 이른바 감성의 크라시시즘이랄까 재래의 스타일을 계승한 것이 누렸다. 시적 관심을 제한한 시풍인데 혹은 순수시라고 일컫고 시의 안정성을 우선에 생각하는 것이었다. 크라시시즘이란 현실의 세계성을 제한하여 관심하는 데 있고 해서 현대의 시가 내포하여야 할 현실에 대한 애날리시스를 결여한 것이다. 그런데 시적 에모우션은 반드시 균형에 그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우리의 세계에의 관심이나 전통감(현재에 비쳐진 과거감)은 균형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것은 4·19나 5·16이 여실히 말한다. (중략) 산수적 이미지가 현대의 인텐시티와 야합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의 시적 유니봐스가 결국은 우리의 현실과 현실감의 역사에 세워진다는 뜻에서 1920년대의 구미시가 남긴 자취는 우리에게 세련된 과거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31]

박태진은 순수 서정시를 '시적 관심을 제한'한 시풍으로, '시의 안정성'을 우선하는 시로 파악한다. 그가 보기에 전후의 순수시는 곧 현실에 대한 분석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시적 관심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시가 허무와 자연을 다루는 대신 개인과 인생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현대시와 현실의 관계성을 제기하는 지점이다. 그는 세계에

---

30) 박태진, 「전후시와 한국시의 비교」, 『한국전후문제시집』, p. 317.
31) 박태진, 앞의 글, pp. 318-322.

의 관심, 즉 '세계성'이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역설하면서 '현대시가 내포해야 할 현실의 문제' 곧, '한국적 현실과 현실감에 근거한' 시적 세계의 구축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현실' 혹은 '현실감'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는 명확치 않다. 단지 "독일시단은 한국의 경우처럼 나치정권하에 세계와 격리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신신新新한 시운동을 보일 수 없었다"[32]에서의 언급에 기대어볼 때, 새로운 시(운동)과 정치적인 자유와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정치적인 억압 아래서 사회는 폐쇄성을 가지며 역으로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세계와의 연대가 가능해져 세계적 반열의 시의 탄생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자유'의 논리는 4·19 이후의 시민정신과 자유이념의 영향이라 짐작할 수는 있지만, 텍스트에 국한해 해석하자면 '자유'는 자유 자체로 중요성을 갖기 보다는 세계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도구적 의미에 머무른다. 더구나 우리 시가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한 것을 단지 일제 치하라는 시대성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진단한 것 역시 '청록파'에 한정된 지나친 단순논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와 현실의 분명한 구분을 취한 기성 문단의 입장을 '자유'와 '현실'의 개념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박태진이 강조하는 것은 현대시는 '현실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탄생한다는 것으로, 현실적인 삶을 시화할 때 영미시와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시가 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실적인 삶이 시 안에 들어올 때 시가 예술적으로도 훌륭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이란 무엇인가? 박태진은 현실을 국내의 상황에서는 '4·19와 5·16'으로 세계적 상황으로는 '핵무기의 위

32) 박태진, 앞의 글, p. 322.

협하의 현대'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는 바, 민주주의와 혁명, 그리고 핵무기의 위협이야말로 그가 생각하는 현대의 구체적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령 역시 '현실'과 '시'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그 는 '현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다음 대목은 이 '현실'에 대한 하나의 참조점이 될 수 있다.

> (9) 행동이 끝나는 데서 언어(시)가 시작된다. 서정주를 중심으로 한 무수한 한국시인이 대개는 이러한 철칙 밑에서 지금 시를 쓰고 있다. 그들이 사랑하는 신라라는 것은 사막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신기루거나 신록의 환상일 것이다. 신라란 언어만 있고 실체가 없는 놀라운 환상의 성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가 끝나는 데서 행동이 시작된다. (중략) 이들(김수영, 전봉건, 김종문, 민재식, 김춘수 등 - 연구자) 시의 미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역사적 체험이요 그 의미이다. 여기서 인용된 언어들은 현실과 절연된 밀실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어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지시하는 저편쪽 현실의 풍경과 맺어 있다.[33]

이어령은 '행동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언어'로서의 시와 '언어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행동'을 나누어 시의 계보학을 시도한다. 전자가 서정주 류의 전통서정시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전봉건, 김수영 류의 시를 의미한다. 그가 옹호하는 시는 후자의 언어, 즉 '현실의 풍경과 맺어 있는 언어'이다. 그는 이어 "서정주 류의 전통 서정시가 지닌 영원성은 언어 가운데 있는 것이고 봉건의 시가 지닌 영원성은 행동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자는 행동에 절망하고, 후자는 언어에 절망한다"고 말한다. 이때의 후자는 기존의 시적 언어 즉 "지상의 사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이 증발된 환상의 언어라는 면에서 철저히 비

33) 이어령, 「전후시에 대한 노오트 2장」, 앞의 책, p. 325.

판된다. 그는 시의 현대성이 '언어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행동'의 시가 될 때, 즉 역사적 체험이 미학에 의해 뒷받침될 때 획득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어령이 기성의 시단을 비판하는 핵심논리는 그들이 문학과 현실을 서로 다른 체계로 분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른바 전통 서정시파들은 문학을 성립시키는 언어와 현실에 존재하는 언어를 분명히 다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어령은 그들의 시를 '신기루나 환상'의 시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는 표상할 '실체'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즉, '언어만 있고 실체가 없는 놀라운 환상의 성'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행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⑽「행동이 끝나는 데서 언어가 시작될 때」 봉건은「테크니시앙」이 된다.「언어가 끝나는 데서 행동이 시작될 때」 봉건은「레지스탕스」다. 이러한 이야기는 송욱에게도 적용된다.「언어가 끝날 때 행동이 시작하는」 송욱은 언어의 調術師다.[34]

이어령은 시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실천성을 지지한다. 그는 '언어적'인 것과 '언어가 끝나는 데서 시작되는 행동'을 분명히 구분한다. 이를테면 '언어적'이라 함은 언어체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언어들이다. 이런 언어는 현실 관련성이 사라진 언어로 비판된다. 반면에 언어가 끝나는 데서 시작되는 행동은 죽은 언어에 절망하는 대신 행동에 뛰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끝나는 데서 시작되는 행동으로 나아간 슈르레알리스트는 영원한 사건을 시 안에 새김으로써 영원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그것은 "슈르레알리즘의 거장들이 레지스탕스로 전향"[35]해 간 전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세계문학이 가 닿은 시의 발전적 모델이기도 하다. 그는「아

34) 이어령, 앞의 글, p. 325.
35) 이어령, 앞의 글, p. 325.

데네 프랑세」(김종문), 「사랑을 위한 되풀이」(전봉건),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김춘수) 이상 세 편의 시를 새로운 시의 전범으로 삼아 논의를 펼친다. 세 편의 시들은 각각 일제치하, 6·25 전쟁, 헝가리 사건 등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이다. 이 세편의 시는 그가 생각하는 시적 언어- 즉, '역사적 체험과 의미'와 '미학'이 성공적으로 합일된 언어-의 특징이 성공적으로 투영된 시인 셈이다. 그렇다면 박태진의 '현실'과 이어령의 '역사'는 모두 시와 현실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선택된 이념라고 하겠다. 즉, 이들은 시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세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박태진이나 이어령 모두 현실이 시속에 기입될 때 시성詩性 혹은 시의 예술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현실, 역사 등의 외재와 언어, 수사 등 내재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때 시의 예술성이란 시가 단순히 현실을 잘 그려내거나 현실을 잘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이어령이 언급한 김종문, 전봉건, 김춘수의 시들은 현실을 묘사하거나 고발하는 데 목적을 둔 시들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배면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수사와 비유가 충분히 세련된 시들이다. 물론 그들이 예로 든 김춘수, 전봉건, 김종문의 시가 현재적 시점에서 '현실을 잘 드러내면서도 미학적으로 뛰어난' 시인가 하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현실-시 사이의 자율적 세계관이 분명했던 당대 시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위의 시들은 여타의 시들과는 변별되는 유의미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어령은 위의 시들이 지닌 변별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그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순수한 언어- 즉, 일상과는 분명히 구분되는-가 갖는 무(無)현실성, 그 언어의 효과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다. 그러나 이들은 시/현실, 언어/현실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대신 언어가 관련 맺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다. 그렇다면 당대의 시인들은 무엇을 '현실'로 생각했는가?

⑾ ①나는 십여 년 동안 시를 써 왔다. 이 시대는 세계사가 그러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시대였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 (중략)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사회와 싸웠다.[36](밑줄은 인용자)

② 현실성과 비현실성은 시인이 차지한 양면이라기보다는 시인은 현실이란 토대에 두 발을 버티고 서서 현실·사회를 개혁하며 동시에 이를 예견하는 자세라야 할 것이다. (중략)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직각적으로 영향을 입히며 우리의 현실·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국제 정세에 대하여 일직선으로 영향을 끼치는 피차간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은 시인에게 현실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시인은 생활인으로서 체험을 쌓는 한편 시인으로써 현실·사회를 개혁해 나아가는 이율배반의 위치에 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를 쓰기 위해서 생활인이 된다는 말은 아니고, 생활인이 됨으로써 시를 쓸 수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37](밑줄 인용자)

③ 시 행동을 위한 밑받침. 행동까지의 운산運算이며 상승. 칠할의 고민과 삼할의 시의 총화가 행동이다. (중략) **시의 형식** 나는 시의 형식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등한하다. 나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형식은 「투신」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시의 내용** 종교적이거나 사상적인 도그마를 시 속에 직유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일은 없다.시의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언어. 따라서 나는 시의 내용에 대해서 고심해 본 적이 없고, 나의 가슴은 언제나 無. 이 無 위에서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생활을 더 심화시키는가 하는 것. (중략)

---

36) 박인환,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앞의 책, p. 332.
37) 김종문, 「시작에 있어서의 세 단계」, 앞의 책, p. 359.

> **시어** 내가 써온 시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어들이다. 혹은 서적어와 속어의 중간쯤 되는 말들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중략) 시인이라는, 혹은 시를 쓰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부담이 없다. 그런 의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물을 보는 눈은 더 순수하고 명석하고 자유로워진다. (중략)[38]

박인환과 김종문에게 우리의 현실은 세계사적 현실이다. 밑줄친 대목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들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을 세계사적 보편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 시는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 관련은 박인환에게는 '싸움'이었으며, 김종문에게는 '대결'이었다. 박인환은 시를 쓰는 이유가 절망에 견디면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함이었고, 정치가도 지도자도 아니면서도 세상과 싸워왔다고 술회한다. "정치가도 지도자도 아니면서" 그는 시인으로서 언어를 가지고 싸운다. 중요한 지점은 그가 '시인'이라는 존재를 언어를 가지고 싸우는 존재로 여긴 것이다. 말하자면 그에게 언어는 세상과 불화하기 위한, 그리고 세상과의 불화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였다. 한편으로 박인환의 싸움은 '식민지의 애가와 토속의 노래'[39] 즉, 애가-감상주의와, 토속-전통서정의 세계-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즉 박인환이 언어를 통해 싸우고자 한 현실은 '감상주의와 전통서정'이라는 미적인 현실과 '불안의 세계'인 사회 현실이라는 두 개의 현실이었다. 한국의 현실을 세계사적 현실과 동일화하는 것은 당대 문학인들이 가진 보편적인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당대 문학인들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와 도덕, 질서가 붕괴된 현실을 1·2차 세계 대전 후의 유럽과 동일시하면서 절망과 불안으로 점철된 실존적 상황에 대한 세계성을 확보해나갔다.[40] 김종문에게도 이

38) 김수영, 「시작 노오트」, 앞의 책, pp. 352-353.
39) 박인환, 앞의 글, p. 332.
40) 이평전, 「1950년대 실존주의 비평과 신인간론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

대결이란 '현실을 행위한다는 말, 즉 시인은 현실을 행위한다는 말'을 의미한다. 특히 김종문의 경우 시인은 현실 변혁의 주체적 행위자라는 형상으로 자리매김된다. 시인은 언어를 가짐으로써 현실을 변혁할 수 있다. 그 대결은 생활인이 됨으로써 가능해지는 대결이다.

김종문은 현실 참여에 있어 '시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시인이 현실, 사회에서 시작품에의 실마리를 찾게 되면 곧 조작이 시작된다. 이 조작이란 말은 실험이나 제작이란 말로 이해되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부연한다.[41] 즉, 김종문은 이어 조작의 구체적인 예로, "현의식의 저변에 있는 무의식을 발굴"하는 것을 들고 있다. 말하자면, 현실의 참여는 곧 시의 언어로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시인'이 생활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경험이 풍부화 될 때 언어로서 새로운 현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김수영의 경우에도 시의 내용은 '종교적 이거나 사상적인 도그마'가 아니다. 그는 언어가 시의 근원이라고 단언한다. 그의 언어는 서적어와 속어의 중간쯤 되는 '일상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을 더 심화시킬 때 언어는 새롭게 창조되고 확장될 수 있다. 김수영은 시의 내용이나 형식은 언어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 언어란 사물의 본질을 명석하게 꿰뚫어보는 언어이다. 그러나 그 언어는 시인임을 자각하지 않을 때 더욱 명석해진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즉, 김수영의 문제의식은 도그마와 이데올로기로서의 현실은 시에 기여하지 않으며 시는 이데올로기적 현실과는 구분되는 생활에서 출발한다는 것에 있다. '의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시의 조건이 된다. 그가 일상어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

---

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5호, 2012, p. 317.

41) 김종문, 앞의 글, p. 359.

는 것은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언어의 창조와 파괴의 원동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종문이나 김수영의 경우에 현실은 정치적·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생활'은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적인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즉, 그들이 말하는 현실은 제도와 정치 등의 이데올로기적 현실이 아니며, 제도와 정치가 지배하는 일상의 장에서 개인이 느끼는 욕망이나 억압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가까운 것이다. 김수영이 시가 행동을 위한 뒷받침이라 정의 내린 것은, 시가 새로운 언어로서 그 욕망과 억압을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김종문은 '무의식의 드러냄'이라는 표현으로, 김수영은 "'無' 위에서의 창조와 파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하는 시'라는 인식은 당대의 여러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행동으로의 시'는 주지와 서정이라는 이른바 양 흐름에 속해있지 않은 중립적인 시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온다. '서정'과 '주지'는 '화조풍월적인 것'과 '모더니즘적인 것'이라는 짝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는데, 중립적인 시인들은 각자의 시작에 있어 두 유파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는 한편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려는 모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⑿ ①화조풍월인 것과, 모더니즘 적인 것의 쇠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모든 비사회적인 것, 그리고 무의미한 유희성, 혹은 낡아빠진 취미성과 그리고 근대소시민적인 모든 유한적 양상들의 후퇴를 말하는 것이다. 즉 화조풍월은 현대에 있어서 의당 전통적인 것을 존중하는 그 태도 가운데 스스로 근대적인 지적처리가 가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자연적인 비사회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너무나 안이한 자연발생적인 길에서 답보만을 일삼아왔던 것이며 (중략) 소위 우리 시단의 모더니즘이 일률적으로 빠져든 과오란 그

들이 시에서 자연발생적인 것을 혐오한 나머지 시의 관념으로서의 어떤 가공의 포에지를 정말의 시처럼 착각한데 있는 것이다.[42]

②이 반동의 새로운 세대의 주지적 감각파들은 이러한 낡은 서정에 반기를 높이 들고 현대에 대한 기술인적 의식 속에서 문명의 속도에의 예찬과 사상적 인간으로서의 올가니즘적인 모순·고민만을 소재에 도입함으로써 그 감각이란 철두철미 주지적이요 현실적으로서 시어의 생리에 있어서도 「시민과 연통(煙筒)」, 「로오타리와 분수」, 「전쟁과 군화」, 「교수와 파잎」, 「불안과 절망」 등의 현대적 문명의 고유명사를 즐겨 구사함으로써 철학적 판단정지상태에 배회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 양측 시인들이 배출하던 그 시대적 배경이 가미하였으니, 즉 서정파 시인들에게는 일제의 탄압이 저항력을 奪取하여 버렸기 때문에 현세에의 隱遁(은둔)과 초연 속에서 인간 세상의 기대를 蔑視하는 습성을 동양적인 생리·관념으로 일찌기 자기구제에 고정화시켰고, 주지적 시인들에게 있어서는 八·一五 이후의 모든 자유와 민주적 사조의 유입으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념적 대결의식을 처음 맛보았기 때문에 자기 구도의식이 없는 세계사적인 당착에 함입되고 만 것이다.[43]

③현대시가 사회의 반영이자 비평이어야 한다는 그 말은 물론 지당합니다. 시의 사회성이라든가 비평성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사상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적인 방식과 발상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여타의 장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벌써 시의 존재이유는 상실되고 마는 게 아니겠어요? (중략) 시가 오늘날처럼 독서층에서 경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인 자신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시인 지망 청소년들의 애완물에서 떠나, 좀더 대중에게 읽히는 예술이 되도록 - 그런 시를 모색하는 태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44]

---

42) 김윤성, 「감성의 솔직한 표현」, 앞의 책, pp. 354-355.
43) 구상, 「詩作餘談」, 앞의 책, p. 340.
44) 유정, 「대화」, 앞의 책, pp. 394-395.

당대의 중립적인 시인들에게 양 진영은 각각 비판된다. 서정시파는 '대자연적인 비사회성', '낡은 언어' '현실의 결여'가, 모더니즘(주지)파는 '과도한 사상성'과 '관념적(인공적) 시어', '자기 반성 없는 세계사적 당착의 함입' 등이 비판의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을 거쳐 그들은 통합의 시를 지향한다. 박양균은 "비사회적인 것, 그리고 무의미한 유희성, 혹은 낡아빠진 취미성과 그리고 근대소시민적인 모든 유한적 양상들의 후퇴"에서 벗어난 시를 지향한다. 즉, "자연과 문명의 교량이라고 하기는 엄청나고", "서정과 지성이라 이르기는 어색"하지만, "정지를 모르는 움직이는 시"[45]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또한 유정의 견해처럼 사회성과 비평성, 사상성을 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의 대중성에 대한 고민 '즉 대중들에게 읽히는 시'에 대한 모색 역시 당대 시인들이 가진 문제의식이었다.

이상의 논의에 기대어 보면, 그들에게 '행동하는 시'라는 용어는 전후 시론에서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전후 시문학사를 한국적 전통성과 서구적 현대성이라는 틀로 파악하는 것은 서정과 지성, 운율과 이미지, 형식과 내용 등 문학원론적인 논쟁과 직결되어 있다.[46] 이러한 이분법은 '행동하는 언어'라는 프레임을 통해 일정정도 해소되어 통합의 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령, 김수영, 김종문, 박인환 등의 신진시인들은 새로운 언어의 핵심을 현실과의 관련성에 두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정치적 현실이 아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생활'은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적인 삶을

45) 박양균, 「육교를 위한 시론」, 『한국전후문제시집』, pp. 373-374.

46) 박연희, 「1950년대 후반 시단의 재편과 현대시 개념의 논리 - 〈한국시인협회〉(1957~1962)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43』, 2011, p. 65.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이때 언어- 현실의 연계는 새로운 언어로서 '개인'의 다양한 욕망과 다양한 삶의 국면들을 포착하는 새로운 시를 쓰려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시기상으로 신세대 문인들이 대거 등장하고 모더니즘론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본격화된 1955년 이후에 이 구분(서정과 지성, 운율과 이미지, 형식과 내용)이 구세대와 신세대를 구분하는 일종의 준거틀로 기능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위 시인들에서 개진되는 현실과 언어, 정치적인 것과 시적인 것의 변증법적 지양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15년을 거치면서 우리의 현대시가 우리의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비로소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후 신진 시인들이 해방 전후의 시사를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서 현대시의 인식론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시의 방향성을 정하고 시의 미학을 개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 4. 한국어의 미적 실험

전후 신진 시인들이 천착한 것은 두 개의 문제였다. 하나는 현시대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 라는 현실의 내용적 측면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현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 라는 형식 즉, 미학의 문제였다. 그들은 시인의 개성이 '스타일의 발견'[47]에 있다고 생각했다. 리리시즘에 입각한 김광림이 '모더니즘에 윙크'한 이유는, '변모된 서정시를 쓰려는'[48] 욕망 때문이었으

47) 김윤성, 앞의 글, p. 355
48) 김광림, 「주지적 서정시를 생각한다」, 『한국전후문제시집』, p. 347.

며, 김종문은 '현실과 사회에서 시의 실마리를 찾은 다음'에 시적 실험이 뒤따른다고 여겼다. 그의 시적 실험은 '現意識이 저변에 있는 무의식을 발굴함으로써 現意識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었다. 김종삼에게 시의 세계는 "의미의 白書"에 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며, 시의 이미지는 다시 "幻想의 영토에 자라는 식물"[49]로 비유되었다. 고원에게 현대시인의 과제는 "가장 참신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데에 열중"[50]하는 것이었다. 전봉건의 시 쓰기는 "고쳐 쓰기의 되풀이" 과정으로 "샹송을 쓰기 위한" 리듬에 천착하는 과정과 동일시된다.[51] 이렇듯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참여한 시인들은 각각 현대성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미학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앤솔로지 시집에서 실제적인 미학으로 시도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중에서 조향은 시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론을 펼친다. 조향은 「데뻬이즈망의 미학」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미학을 개진한다.[52] 그는 당대의 시인들과는 달리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계승자를 자처함으로써, 자신이 현실을 부정하는 "혁명파"임을 강조하고 있다.[53] 그의 시는 자신의 시론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산문 「데뻬이즈망의 미학」에서는 자신의 시 「바다의 층계」를 통해 자신의 시론을 설명한다.

조향의 실험은 전후 한국 현대시의 포에틱 딕션에 대한 고민에

---

49) 김종삼, 「의미의 백서」, 위의 책, p. 360.

50) 고원, 「이미지와 이미져리」, 앞의 책, p. 334.

51) 전봉건, 「시작 노오트」, 앞의 책, p. 404.

52) 앞서 말했듯이 조향은 『매일신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일본동인지 『日本詩壇』 등에 일어로 된 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 바 있는 이중언어세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시인이다.

53) 오문석, 「전후 시론에서 현대성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26권, 2005, p.15.

서 비롯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의미를 초월할 때 예술이 된다. "데빼이제된 하나하나의 사물을 〈오브제〉라고 부른다"[54]는 원리에 입각해 의미가 탈각되고 하나의 물질성, 오브제가 되는 지점에서 시적 언어가 된다고 본 것이다.

⑿낡은 아코오뎡은 對話를 관뒀습니다.

- 여보세요!

'뽄뽄다리아'
'마주르카'
'디젤·엔젤'에 피는 들국화

- 왜 그러십니까?
모래밭에서
受話器
女人의 허벅지
낙지 까아만 그림자

비둘기와 소녀들의 〈랑데.부우〉
그 위에
손을 흔드는 파아란 기폭들

나비는
起重機의
허리에 붙어서
푸른 바다의 층계를 헤아린다.
-「바다의 層階」

54) 조향,「데빼이즈망의 미학」, 앞의 책, p. 417.

수록시 「바다의 층계」를 시인은 데뻬이즈망의 시론을 설명하기 위해 재인용한다. 이 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물들을 의도적으로 병치시키고 있다. 이른바, 콜라쥬의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개별적인 이미지들의 의미는 지워진다. 이 이미지들은 현실적인 연관 관계가 제거된 채 의식의 흐름에 의해 탄생한 시적 공간 속에 배치된 것이다. "낡은 아코뎡은 對話를 관뒀습니다"가 환기하는 단절의식은 디젤·엔진/들국화, 受話器/여인의 허벅지, 비둘기와 소녀들의 랑데부/파아란 기폭들, 기중기의 허리/나비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문명/자연, 폭력/평화의 대립이 극명할수록 각 행·연의 단절감 역시 더욱 강화된다. 또한 1연과 6연을 제외하고는 문장의 서술어를 생략하는 비문법적인 구문을 보여줌으로써 의미론적인 단절을 꾀하는 등 통사적 구성 원리를 깨뜨리고 있다.[55] 이 외에도 시 형태주의(포르마리슴 formalism)를 이용하여 시각적 단절감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위 시에서 의미와는 무관한, 물질성이 강조된 언어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

> ⑿ 「말」의 구성에 의하여 특수한 음향(운률이 아니라)이라든가, 예기하지 않았던 '이마쥬', 혹은 활자 配置에서 오는 시각적인 효과 등, 「말의 예술」로서의 기능의 면에다가 중점을 두는, 이른바 「현대시」.[56]

조향은 운율이 아니라 음향이, 활자의 배치가 주는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된 언어를 현대시의 조건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조향이 현대성을 인식론적 측면보다 기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는 시를 이루는 매체의 측면에서 시의 언어성과 현대성을 접근한다.[57] 시의 중심이 청각성에서 시각성, 다시 영상

---

55) 졸고, 「조향 시 연구」,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제25호, 2008, p. 267.
56) 조향, 앞의 글, p. 417
57) 이러한 현대시의 자치령에선 세기말 상징주의에서 볼 수 있던 음악성은

성으로 위치 이동한 상황에서 그가 지향하는 시는 언어의 물질성을 극대화한 시, 즉 언어의 시각성과 음향성이 동시에 발휘되는 시이다. 조향이 초현실주의적인 방법론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에는 이러한 매체관이 깔려 있다. 조향은 '데뻬이즈망' 기법에 입각한 미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⑿ 거기엔 아무런 현실적인, 일상적인 의식면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동떨어진 사물끼리가 서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이와 같이 사물의 존재의 현실적인, 합리적인 관계를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데뻬이즈망〉이라고 한다.
>
> 시인에 있어서 〈이마쥬〉는 「절대」와 「본질」에 통하는 유일의 통로요 탈출구이다. 절대현실은 곧 초현실이다. 이렇게 봤을 때 나의 「바다의 층계」는 순수시다.[58]

그가 말하는 절대 현실은 일상적 통사관계가 제거되고 언어의 법칙성이 사라진 세계이다. 전통적 서정시가 선형성에 입각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세계라면 조향의 〈데뻬이즈망〉 시는 논리적 연쇄를 벗어나 있다. 즉 텍스트 내적 세계의 인과성과 논리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선형적 글쓰기의 반대편에 놓이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작업들은 현대성을 시의 형식면에서 개진한 선취적 논의로서 새롭게 읽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초현실주의의 미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앞서 이어령이 언급한 대로, 미적 전위

---

이미 포기돼 버리고, 리듬이 있다면 '이마아쥬의 리듬'이 있을 뿐이다. 소리가 있다면 음악성보다 음향성이 더 농후하다. 19세기까지의 시가 음악성이었다면 20세기의 시는 회화적이고 음향적이다. 이것이 20세기로 넘어와서, 이른바 전위시인들에게 걸리면 적력한 공간적 영상, 혹은 돌발하는 진기 황홀한 '이마아쥬'로서 '의미의 세계'가 포기된다. 조향, 「현대시론(초)」, 『조향전집』, 열음사, 2002, p. 147.

58) 조향, 앞의 글, p. 427

와 정치적 전위를 동반하여 수행한 '슈르레알리스트'와는 달리, 조향의 실험은 철학적 바탕이나 인식론적 토양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목된 형식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유 없이 기법 그 자체에 몰두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조향 자신은 "이십세기의 시는 시의 진보를 넘어서 진화를 하고 있"으며, "진화는 곧 혁명"[59]이라는 명제를 자신의 시적 과제로 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대시의 풍요로운 미학적 차원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 ⑮ 이 움직씨(動詞) 〈데뻬이제〉는 「나라」를 바꾼다는 뜻이다. 국적을 갈아버린다는 뜻이다. 초현실주의에서는 「전위」라고 한다. 슈르의 화가들은 〈데뻬이제〉의 방법으로서 〈빠삐에 꼬레〉(서로 관계 없는 것끼리를 한데 다 갖다 붙이는 것), 이것의 발전된 것으로서 〈꼬라아쥬〉(collage), 그리고 〈프로타쥬〉 (이하 생략)[60]

그러나 그의 실험을 슈르레알리즘의 측면이 아닌 문자성이라는 매체적 차원에서 살피면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즉, 선형적 질서를 거부하는 데뻬이즈망 기법은 무의식을 시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인 한편, 의식세계의 선형성을 파괴하는 면에서 문자성을 초월하는 현대적 기획으로 볼 수도 있다. 더불어, 이 문자가 한국어라는 점에 집중할 때는 다소 흥미로운 지점에 가 닿게 된다. ⑮에서 그가 '데뻬이제'를 '나라 바꾸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에게 '데뻬이제'는 '나라를 바꾸는 것'이며 그것은 다시 '국적을 갈아버리는 것'과 동일시된다. 그가 해방 전 오랫동안 일본어로 시를 써왔다는 사실을 참조하면, 그에게 '모국어로 시쓰기'는 거의 새로운 언어의 창안에 가까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59) 조향, 앞의 글, p. 420.
60) 조향, 앞의 글, p. 417.

런 시각에서 보면, 그가 의미를 버리고 언어의 물질성에 몰두하는 과격한 언어실험을 보여준 것은 '무국적'에 가까운 그의 '언어적 정체성'과 관련지어 고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 5. 결론

『한국전후문제시집』은 1961년에 출간된 것으로, 1945년-1960년까지 등단한 신진 시인들을 선정하여 "일목요연하게 전후시를 훑어볼 수 있는"[61] 기획 의도를 지닌 앤솔로지 시집이다. 이 연구는 『한국전후문제시집』에서 수록 평문과 시인들의 산문들을 텍스트로 전후신진시인들의 언어의식과 새로운 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첫째, 포에틱 딕션으로서의 한국어, 둘째, '행동하는 시'의 의미, 셋째, 한국어의 미학적 실험이라는 세 측면에서 그들의 언어의식과 새로운 시에 대한 모색을 접근하였다. 『한국전후문제시집』의 수록산문들은 '모국어로 시쓰기'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의 상황과 조국의 운명을 결부지어 생각하는 '세계시민'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세계'의 일원으로서의 '한국'에의 인식에서 나아가 '한국어로 문학하기'라는 문학적 과제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된다. 일본어라는 매개가 아닌, 한국어로 쓴 시를 가지고 세계와 견주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언어의 고안이 문학적 과업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전후문제시집』의 수록산문이 보여주는 포에틱 딕션의 문제는 한국시의 현대성의 미학을 언어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데서 필연적으로 가닿은 문제의식이었던 것이다. 특히 전후의 신진 시인들은 일제 치하에 태어나 모국어 대신 일본어를 공식어로 배운 '이중언어세대'

61) 박인환 외,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p. 3.

로 모국어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미적 시도를 통해 한국어로 시쓰기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사실, 이들이 새로운 언어에 대해 천착한 것은 현실과 분명히 구분되는 '순수한 언어'를 가진 기성 시단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문학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현실에 긴밀히 연관된 언어, 시 속에 현실을 기입하는 언어라는 새로운 언어 프레임 속에서 새로운 시를 창작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어로 시쓰기'라는 시사적인 과업은 한국어의 미적 실험이라는 미학적 과제로 이어진다. 특히 조향이 내건 〈데뻬이즈망〉의 미학은 한국어의 미학적 가능성에 대한 전위적인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향의 〈데뻬이즈망〉 시는 논리적 연쇄를 벗어나 있다. 즉 텍스트 내적 세계의 인과성과 논리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선형적 글쓰기의 반대편에 놓이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작업들은 현대성을 시의 형식면에서 개진한 선취적 논의로서 새롭게 읽힐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전후문제시집』이 전후시를 대표하는 시인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후부터 60년까지 활발히 활동한 시인들을 총망라했다고는 하지만, 김구용이나 신동엽의 경우처럼 문학사적 평가를 받은 시인들이 수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것은 전후시의 패러다임에 대한 당대의 평가와 후대의 평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앤솔로지 시집은 당대 현장에서 활동했던 시인들의 언어관과 시와 관련된 담론들을 생생히 드러내는 시집이라는 의미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렇다면, 『한국전후문제시집』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들은 언어- 현실과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현실과 언어의 관계성을 재탐색하려고 하였다. 시와 현실을 각기 다른 세계에 놓인 자족적 세계로 보지 않고, 두 세계의 연관성에 대해 탐색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언어가

끝나는데서 시작되는 행동'라는 명명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 때 '현실'은 제도와 정치 등의 이데올로기적 현실이 아니며, 제도와 정치가 지배하는 일상의 장에서 개인이 느끼는 욕망이나 억압이라는 구체적 현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 반응하는 시를 갈망한 『한국전후문제시집』의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1960년대의 참여시단을 예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영이나 신동엽으로 대표되어 온 참여시의 문학적 계보를 다원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풍부화 할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가령, 시와 정치에 대한 명료하면서도 전위적인 해답을 내놓은 김수영이나 신동엽의 출현은 이러한 담론들을 선행 조건으로 하여 탄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전후문제시집』에서 시와 현실, 언어와 현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대의 새로운 시가 기성 시의 지배적 담론 체계를 파열하는 징후를 보여주면서, 1960년대 참여시의 예비적 자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전후문제시집』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일본어에서 벗어나 모국어를 향하여 개방된 시적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참여한 시인들은 각각 현대성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미학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미학으로 시도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수록시 들을 살펴볼 때, 그러한 미학이 시를 통해 충분히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모국어'로 된 새로운 언어에 기반한 시적 감수성을 토대로, 새로운 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인환 외,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2. 논문

김양희, 「조향 시 연구」,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제25호, 2008. pp. 251-282.

남진숙, 「한국전후시에 나타난 몸에 대한 표상과 그 의미 - 『한국전후문제시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8집, 2010, pp. 75-95.

박연희, 「1950년대 후반 시단의 재편과 현대시 개념의 논리 - 〈한국시인협회〉(1957~1962)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pp. 63-94.

송승환, 「조향 시의 수사학 - 전후문제시집을 중심으로」, 중앙어문학회, 『어문론집』 47집, 2011, pp. 197-218.

송승환, 「김종삼과 전봉건의 수사학 - 전후문제시집을 중심으로」,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2011, pp. 311-332.

오문석, 「전후 시론에서 현대성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26권, 2005, pp. 7-32.

이명찬, 「1960년대 시단과 『한국전후문제시집』」,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제26호, 2011. pp. 473-499.

이평전, 「1950년대 실존주의 비평과 신인간론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5호, 2012, pp.311-334.

임지연, 「1950년대 시의 코스모폴리탄적 감각과 세계사적 개인주체」, 한국시학회, 『한국시학연구』 제34호, 2012, pp. 185-216.

장인수 「전후 모더니스트들의 언어적 정체성 - 박인환, 조향, 김수영의 경우」,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pp. 40-58.

3. 단행본

김수영, 『김수영전집』, 민음사, 2002.

조향, 『조향전집』 열음사, 2002.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 그린비, 2014.
최예열, 『1950년대 전후 문학비평 자료』, 월인, 2005.
랑시에르(Ranciére, Jacques) 지음, 오윤성 옮김,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 b, 2008.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 Pierre) 지음, 하태환 옮김, 『예술의 규칙-예술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9.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 Pierre) 지음, 김현경 옮김,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2014.

[Abstract]

## A Study on the Linguistic Consciousness of Postwar Rising Young Poets and Possibility of 'New Poem'

- Focusing on the Anthology, *Notable Postwar Poems of Korea* -

Kim Yang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ing the aesthetic modernity aspect of postwar poems by taking the prose of postwar rising poets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Korean postwar controversial poems』 and exploring their awareness on language. First, their literal task was new understanding on Korean language as a poetic language. They were so-called 'dual-language generation', who had been born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grew up while reading and writing in Japanese language; instead of mother tongue. They share the concern on the literal task of 'creating literature in Korean language'. The issue of poetic diction as told by the prose in the 『Collection of Korean postwar controversial poems』 was the critical mind, which they inevitably arrived at as a lingual issue; while approaching the modernity aesthetics of Korean poetry. In fact, the reason of their seeking new language was to build independent literature independent from existing poetical circle, which had 'pure language', which was clearly different from reality. They created new poems within the framework of new language, which was the language closely related to reality, or, the language by which they can describe reality in poems. The implicative task of 'creating poem in Korean language' led them to the task of aesthetic experiment on Korean language. Especially the aesthetics of 〈Depaysement〉 by Jo Hyang can be evaluated as an avant-garde experiment on the aesthetic possibility of Korean language.

Key words: 『Collection of Korean postwar controversial poems』, poetry and reality, modern aesthetics, poetic diction

김양희
소속: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기초융합교육원 조교수
주소: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경남동아아파트 808동 503호
연락처: 010-8790-4350
전자우편: yhpoem7201@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5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